

2011년 국내 트렌드 키워드는 ‘긴장’과 ‘모색’

삼성경제연구소, 2011년 국내 10대 트렌드 발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지 3년째인 2011년은 경제성장세 둔화, 다양한 사회갈등의 표출, 한반도 안보리스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한편, 2011년은 21세기 두 번째 10년을 시작하는 해로 다양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 국내 10대 트렌드' 발표자료를 정리·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한국경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했으나 위기 3년차 증후군이 나타나고, 유럽, 중국, 한반도 등 국내외에서의 불확실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외관계, 산업 측면에서의 화경 및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고조되는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특히, FTA 네트워크의 급속한 확대, 방송, 미디어 시장의 격변, 바이오 복제약 생산, 스마트 기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확산 등이 예상된다.

▶ 명암이 교차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

미국의 신한반도 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미중협력이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북핵·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해관RP를 공유하면서 친안함 사건 이후 약화되었던 양국 간 협력을 다시 강화할 전망이다.

▶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2011년 미국 및 EU와의 FTA가 발효될 예정으로 세계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경제권이 한국의 FTA 네트워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EU 등 선진 거대경제권은 물론 아세안, 인도 등 신흥 거대경제권을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1년 국내 10대 트렌드

10대 트렌드	핵심내용 및 이슈
1. 명암이 교차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	대화가 재개되나 북한의 도발가능성 상존
2.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
3.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 약화	수출 및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4.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가계부채 증가와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5. 원화강세 지속	원/달러 환율 1,000원대 진입
6. 금융 건전성 규제의 본격 시행	은행세와 일부 바젤Ⅲ 규제 도입
7. 방송·미디어 시장의 재편	콘텐츠 경쟁 가속화와 미디어 업계 합종연횡
8. 바이오·제약 산업 도약의 원년	바이오 복제약 시대 본격화
9. 스마트 기기와 SNS의 확산	신비즈니스 모델 등장과 생활패턴의 변화
10. 사회갈등과 공정사회 어젠다 부각	새로운 갈등 형태 표출

[2009년 이후 한반도 정세의 전개 추이 및 전망]

연 도	위기 단계	특징과 주요내용
2009	고조 국면	북한의 대미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2010	폭발 국면	북한의 대남 도발과 미중갈등
2011	관리 국면	대화복원 속 긴장 지속

이에 따라 수출환경 개선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거대경제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성장동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수기업은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체질 개선,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생존을 모색할 것이다.

▶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 약화

2010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한국경제는 2011년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 둔화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민간소비가 수출부진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상쇄하지 못해 경기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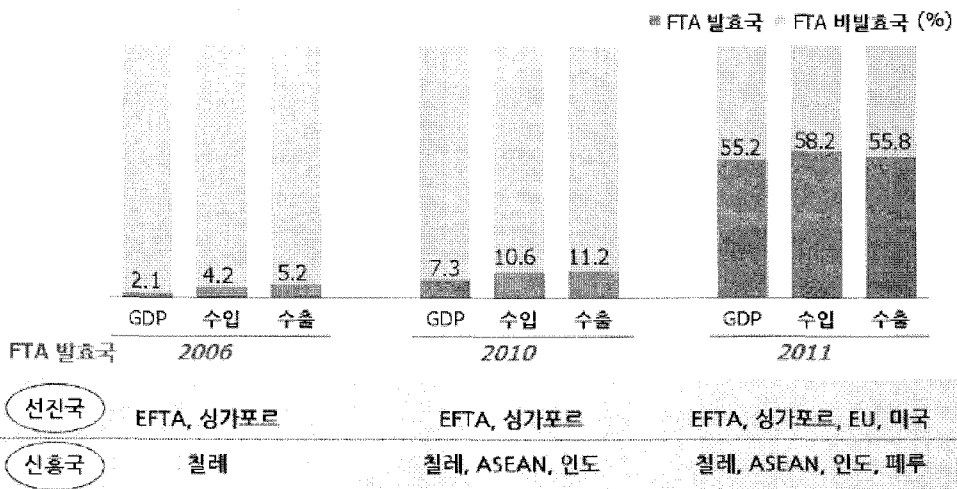
2011년의 성장세 둔화는 한국경제가 저성장 체제로 추락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완만하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금리가 상승해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선진국과는 달리 조정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의 만기구조가 짧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주택경기 부진 등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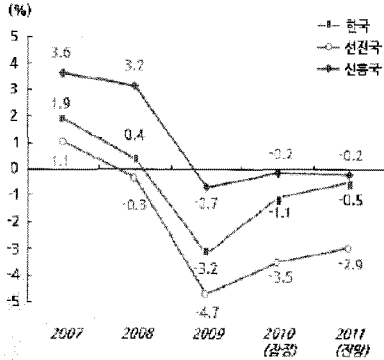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의 낮은 담보인정비율(LTV)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낮다

한국의 FTA 네트워크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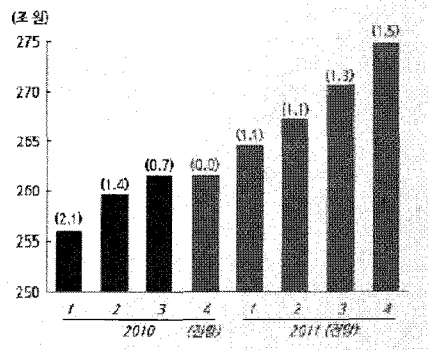
주: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자료: Global Insight를 토대로 삼성경제연구소 작성

GDP 갭률 추이



주: GDP 갭률(%)=(실제GDP-잠재 GDP)/잠재GDP
 자료: IMF, WEO.; 삼성경제연구소

계절조정 실질GDP추이 및 전망



주: () 안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ECOS.; 삼성경제연구소

고 판단된다. 그러나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부실화되고, 가계부채가 소비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

▶ 원화강세 지속

2010년 들어 주춤하던 원화강세가 2011년에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000~1,250원 범위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2011년에는 1,08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엔 환율도 2010

년 13.2원에서 2011년에는 12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고환율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 건전성 규제의 본격 시행

2011년 중 거시건전성 부담금과 일부 바젤Ⅲ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외화 유출입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최근과 과거(2005~2007년) 원화 강세기 비교]

구분		2005~2007년 (2005년 평균 → 2007년 평균)	최근 시기 (2009년 평균 → 2011년 평균)
원/달러 환율		1,024원 → 929원(10.2% 절상)	1,276원 → 1,080원(18.2% 절상)
원/엔 환율		9.3원 → 7.9원(17.8% 절상)	13.6원 → 12.6원(8.4% 절상)
대외환경	세계경제 (PPP 기준 성장률)	고성장기 4.6%('05) → 5.3%('07)	불안정한 성장 -0.6%('09) → 4.6%('10) → 3.8%('11)
	선진국vs.신흥국	동반 성장	디커플링(선진국 < 신흥국)
	유가(두바이유)	49.4달러 → 68.3달러(38.1% 상승)	61.9달러 → 82.1달러(32.5% 상승)
대내여건	금리(회사채AA-)	4.7% → 5.7%(1.0%p 상승)	5.8% → 5.1%(0.7%p 하락)
	대외의존도	60%대 중후반	82.4%(2009년)
특징		- 2011년이 2005~2007년 원화 강세기에 비해 불리 •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고유가, 높은 대외의존도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젤Ⅲ 중 리스크 범위 확대와 트레이딩 규제는 2011년 말에 시행될 예정이며, 2013년부터 시행되는 대부분 규제에 대해서도 국내 은행은 2011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유동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자본 및 레버리지 규제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함으로써 대외부담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 방송·미디어 시장의 재편

2010년 12월 31일에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신규 지정됨으로써 방송시장에 새로운 경쟁이 도입되었다. 올해에도 한정된 국내 광고시장(2009년 7조2,560억원)을 확대하고 신규 및 기존 방송사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이 도입될 전망이다.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의 증가로 콘텐츠의 중요성 및 융복합화가 급진전중이며 콘텐츠 경쟁력이 종합편성채널의 초기 안착을 좌우하므로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 업계 전체적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도입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바이오·제약 산업 도약의 원년

2011년부터 바이오 복제약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1990년 말부터 2000년 초에 출시된 주요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및 시장독점권이 2011년을 기점으로 만료되며 삼성전자, 녹십자, 셀트리온 등이 한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복제약의 품목 선점 및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 복제약은 한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성장 모멘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바이오 복제약은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해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 기기와 SNS의 확산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와 같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스마트폰 국내 가입자 수가 1,50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국내 태블릿 PC 시장규모도 4배 이상 급성장할 전망이다.

통신망 부하 문제가 개선되고 보다 빠른 무선 통신 환경이 조성되면서 대용량 콘텐츠 공유 및 SNS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갈등과 공정사회 어젠다 부각

갈등환경의 악화로 빈부?계층?이념 갈등 등 기존 사회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경제성장은 6% 내외로 회복되었으나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은 여전하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 SNS를 통한 의견표출통로의 다양화 등으로 기존의 양자간 갈등에서 다자간 갈등으로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기업 단위에서 자유로운 노조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 간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서민복지, 대·중소기업 상생,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강화 등이 주요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빈곤층,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갈등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